

바른미래연구원 이슈리포트

Vol.43 2020년 2월 28일
www.brmrins.or.kr

21대 총선 D-48 민생당 총선 운영 방향(안)

김효태 연구위원
cyberteamzang@gmail.com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바른미래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음

1. 21대 총선에서 제3당의 포지션

(1) 20대 총선과 다른 21대 총선의 분위기

20대 총선 당시 제3당(2016년 당시 국민의당)의 선전은 진보 표보다 보수(중도보수)표를 더 많이 흡수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에 실망한 중도보수 및 보수 성향표가 반대세력인 민주당으로 가지 않고 중도를 표방하는 제3당을 대안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에서는 민생당의 포지션을 '중도-중도보수'에서 '중도-중도진보'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여당에 실망한 일부 진보와 중도진보 표를 흡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차마 보수 정당을 찍지는 않을 것이며, 대신 중도정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2) 20대 총선에서는 보수표를, 21대 총선에서는 진보 표를

바른미래당의 이념좌표를 '중도-중도진보'로 하고, 정부·여당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대안 정당으로 선명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념좌표는 '중도-중도진보'이지만 포지션은 확실한 야당이어야 한다. 여당을 대신할 중도-진보적 대안 정당으로 포지셔닝 되어야 한다.

21대 총선에서 '친여당, 친정부'적인 스탠스는 자멸을 뜻한다. 선명한 야당이 아니라, 친여 성향일 경우 여당과 함께 '정부심판론'에 묶여서 참패를 자초하는 셈이 될 것이다.

※ 표4. 여론조사에서는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에게 쏠리는 이념성향(한국갤럽 자료)

	보수	중도	진보	모름/거절	비고
2016.3월2주차(20대 총선 1달 전)	32.3%	29.4%	22.3%	-	보수층 다수
2020.2월1주차 조사	24.9%	28.3%	29.5%	17.3%	진보층 다수

*제3당이 공략해야 할 이념지대는 20대 총선 때는 보수였지만, 21대 총선에서는 진보

21대 총선에서 제3당인 민생당은 20대 총선과 반대로 진보(중도진보)로 확장해야 선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에 실망한 진보 및 중도진보, 중도 성향표는 그 반대세력인 보수 정당으로 갈 수는 없으나 중간지대인 제3당(중도개혁)을 대안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에서 그 반대의 효과를 누렸던(보수 성향표가 진보정당을 찍지 않고 중도개혁 정당을 대안으로 선택) 것과 비슷한 논리이다.

20대 총선에서 제3당(국민의당)이 보수-중도보수 성향표를 흡수한 것은 무능과 반혁신적인 모습을 지속했던 보수 정부(세력)를 공격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므로 21대 총선에서 민생당이 진보-중도진보 표를 흡수하려면, 친여-친정부(친문재인)의 자세가 아니라, 무능과 반개혁 및 불공정한 모습을 보여준 진보(정부·여당)를 공격해야 가능하다.

※ 참고 자료 1

21대 총선에서 민생당이 공략해야 할 이념계층은 중도진보적인 성향의 계층이다. 하지만, 친정부여당 스탠스로는 진보와 진보계층의 지지를 얻어오지 못한다. 진보층이 표를 준다면 직접 여당에게 표를 줄 것이지, 여당의 위성 정당이나 여당 2중대 성격의 정당에게 표를 줄 이유가 없다. 야당이지만 진보와 대척점에 있는 보수(정당)가 아닌, 여당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 정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0대 총선 직전 여론조사 정당별 지지율과 20대 총선 비례투표 정당별 득표율 비교 (자료출처 : 지지율 비교-한국갤럽 정례조사, 득표율-중앙선관위 자료)

	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총선 1달 전(2016년 3월 2주차) 지지율	23%	39%	8%	4%
20대 총선 비례투표 득표율	25.54%	33.50%	26.74%	7.23%

- 20대 총선 1달 전 보수 정당(새누리당) 지지율 대비 실제 득표율은 5.5%p가 빠졌고, 범진보 정당들은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득표율이 상승했으며, 제3당은 18.78%p가 상승
- 보수 정당의 지지층을 제3당이 흡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부심판론으로 선회하기 시작한 여론

- 2020년 2월 2주차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정부심판론이 정부지원론을 앞서기 시작.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다수 당선 43%,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다수 당선 45%, 모름/무응답 13%

2. 총선 대비 전략 방향

(1) 제3당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카드 ‘세대교체’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에서 세력과 지역 기반 그리고 인물(대선주자) 없이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호남 기반의 중도개혁 3개 정당의 통합은 최소한의 지역과 세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당 합당은 과거로 회귀가 아니라, 현실에서 전진을 위한 기초가 되어줄 수 있다. 과거 국민의당은 호남 기반으로 세력과 지지를 모아 성공했다. 당시 호남당이라는 비아냥이 있었지만, 결국 성공했다. 호남정당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호남 기반 정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임이 문제였다.

민생당은 이제 겨우 세력과 지역 기반을 회복했다. 통합정당의 (법정)당 대표가 40대 초반의 여성이라는 점에서 신선함을 줄 수 있지만, 여전히 인물과 새로운 콘텐츠가 부족하고 동력이 되어줄 세대나 세력도 기성 정치인 외에 특별하게 존재하지 않고 있다.

미래세대와 통합으로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 다가올 선거에 이들을 전면 배치하여 세대교체의 의미를 주어야 한다. 새로운 세대를 상징하는 세력들과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래세대 세력에게 당 지도부 구성, 전폭적 전략공천, 그들의 콘텐츠와 아젠다의 적극적인 수렴 및 반영 등이 필요하다. 미래세대 세력들에게는 ‘정치는 현실’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결기와 젊음만으로 선거를 이겨낼 수 없음을 설득하여 민생당과 통합을 결단하도록 종용해야 한다. 미래세대만으로는 선거를 이겨내기 힘든 것이 지금의 정치 현실이다.

(2) 중앙 및 수도권 선거 전략 방향(미래세대와 통합이 전제되어야 함)

“그만! 낡은 정치
시작! 정치 혁명”

“둘 다 똑같다.
시대교체만이 답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은 민생당 뿐입니다.”

현재 주요정당들의 이미지와 전략 등을 유추해보면 대부분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미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작 가장 중요한 ‘현재’가 없다. 제3당은 ‘현재’에 충실한 전략과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공고하게 구축된 친문 세력이 여전히 득세 중이다. 구성원도 이분법적 관점도 전략까지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새로운 세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것도 변함이 없다. 모든 것이 과거에 머물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새누리당으로 돌아간 것에 지나지 않지만 몇 년간 지리멸렬했던 보수 세력이 다시 하나가 되었고, 당의 색상을 핑크색으로 전환하는 등 19대 대선 이후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선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래통합당에서도 젊은 세대로의 교체나 기획 제공은 민주당과 다르지 않을 것이며, 보수세력이 보여왔던 이념 지향적인 모습과 행보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당명에 '미래'를 포함하여 '미래'라는 단어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선점해버렸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래통합당은 과거와 미래를 모두 차지한 셈이다.

민생당은 이처럼 양당이 놓치고 있는 것을 노리고 틈새 공약을 해야 한다. 야당을 심판하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 정부·여당을 탄핵하자는 제1야당의 구호만 들리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거나 대변하겠다는 정당은 하나도 없다. 그에 더해, 젊은 세대를 주력으로 내세우거나 기존 세력을 교체하겠다는 정당도 없다.

민생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싸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젊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과거와 미래의 메시지보다 '현재'의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지금 국민은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에 현실. 즉, '현재'가 중요한 상황이다. 현재의 정치가 이 모양인데 미래를 따지고 생각할 겨를이 없다. 현재의 정치부터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 사항이다. 더구나 미래통합당의 영향으로 '미래'는 아무나 주장하는 단어가 되어버렸다.

민생당은 현재부터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 무능하고 오래된 기성 정치(꼰대 정치)를 지금 당장 중단시키고, 21대 국회부터 새로운 세대에 의해 새로운 정치를 하겠음을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할 것임을 전면으로 내세워야 한다.

(3) 호남권 전략 “보험론”

20대 국회 당시 국민의당 사례를 들며, 호남의 실리적·실용적 선택이 정권 창출과 호남발전에 이바지했음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호남이 만들어준 국민의당이 있었기에 박근혜 탄핵과 새로운 정부 탄생이 가능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도 하지 못한 호남발전과 호남 인재의 약진은, 호남에서 정권과 야당(제3당)을 모두 만들어준 덕분이다. 정부와 여당이 모두 호남을 석권하면 야당 눈치 보느라 불가능했고, 보수 정권에서는 호남발전은 아예 뒷전으로 밀렸다.

20대 국회에 와서 호남이 제3당(야당)과 정권(문재인 정부)을 다 만들어주었고, 호남 안에서 정권과 야당이 경쟁함으로써 호남지역 발전과 호남 인재들의 대거 등용 가능했다.

바로 “호남이 제3당이라는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도 이바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호남의 지속적 발전과 실리 그리고 호남 인재의 약진을 위해 호남은 제3당에 보험을 들어놓아야 한다.”라는 논리로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4) 선거 전술 “흑묘백묘론”

공식 선거운동에 임박 시 지역별로 유연한 선거 전술 실행이 필요하다. 실용주의 전술이다. 수도권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유연함을 갖고 지역별로 선택적 연대 혹은 후보 단일화를 고려한다. 단, 연대나 후보 단일화 대상(정당 혹은 후보)은 미리 특정하지 않는다. 민생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다는 실용주의 자세가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 바른미래당 후보의 적극적인 요청과 당 지도부(중앙 선대위)의 동의만 된다면, 연대(단일화) 전술을 고려해야 한다.

실용주의는 어느 한 가지 자세와 입장만을 고수하는 경직된 행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전술의 세부적 방안을 미리 밝힐 필요는 없다.

(4) 중도개혁통합의 마지막 퍼즐,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과거에 제3지대 중도개혁세력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시에 나타났던 효과와 국민 관심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정치는 현실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상만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다. 국민의당의 저조한 지지율은 국민의 냉혹한 관심도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속칭 ‘안철수계’ 인사들이 속속 미래통합당으로 합류하고 있다. 후속 이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당초에 다짐했던 바대로 보수세력과의 통합·연대를 앓을 것으로 보이며, 이탈하는 사람을 굳이 막거나 설득하지도 앓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는 한 명의 인물이 아니라, 정당(세력)으로 대변된다.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세대가 정당(세력)을 이루어 실체를 보여줌으로 가능한 일이다. 마라톤처럼 혼자 뛰는 레이스가 아니라, 축구와 야구처럼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모여 팀플레이를 통해 장기 레이스를 이겨내야 한다. 민생당은 안 전 대표에게 제3지대 중도개혁정당의 운동장에서 함께 뛰어줄 것을 설득하고, 안 대표가 동참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세대교체를 의미하는 2차 통합이 완료된 후에 안철수 전 대표와의 재결합에 대해, 당내에서 조속한 공감을 이루고 적극적인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다만, 이러한 3차적인 통합은 안 전 대표의 의지에 따라 원활한 진행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국민의당의 성격은 총선보다는 안 전 대표의 대선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의 정당으로 보인다. 민생당의 통합 제의는 그러한 안 전 대표의 입장을 모두 충족시켜주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안 전 대표는 통합에 대하여 거부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안 대표 측과 통합협상을 하면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 플랜B 전략도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 통합이 결렬될 경우, 예상 가능한 상황을 모두 고려한 프로세스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3. 당 운영(안)

(1) 세대교체 효과를 위한 조건

미래세대 중에 지역구 출마자 전원에게 전략공천을 검토해야 한다. 비례대표 공천은 젊은 세대를 전진 배치하여 세대교체 의미를 확실하게 가져가야 한다.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당내 갈등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기성 정치인과 지도부는 비례대표에 대한 기득권을 과감하게 양보하고 후방 지원을 하는 역할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2) 현역의원부터 우선하여 조속히 공천을 완료

현역의원의 경우, 조속히 공천을 완료하여 해당 선거구에서 인물대결 구도를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현재 민생당은 후발주자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황이다. 각 지역구에서 고전이 예상되지만, 각 선거구에서 현역(다선)의원이라는 강점을 충분히 부각하여 이겨 낼 수 있도록 공천을 조기에 확정해줄 필요가 있다.

(3) 비례대표 후보

비례대표 후보 공천은 민생당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비례대표 후보는 유망직종이나 전문가, 청년 희망 직종, 상징적인 직종 등 인위적인 스토리가 아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면받아왔던, 그래서 청년 대부분과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그들이 직접 한국 정치와 사회를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목적을 둘 필요가 있다. 양당과 확실한 차별화와 세대교체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 민생당의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하다.

비례대표 후보는 정치권에서 나름 훈련된 요원을 내세워야 할 필요도 있다. 일부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사례로 본다면, 고려해 볼만 한 부분이다. 근속기간이 최소한 3년 이상인 만 39세 이하의 당직자들과 청년 당원들에게 과감하게 기회를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당직 사회의 사기진작과 위상 확립, 추후 당직 모집에 전도유망한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의 명분이 있다. 이미지 쇼에 불과한 양당의 청년 영입 실패를 부각하면서 진정한 세대교체를 이루었음을 알릴 수 있으며, 양당과 차별화가 가능하다.

(4) 비례대표 후보 공천은 공정한 기회 제공이 핵심. 공모와 민주적 절차가 필수

비례대표 후보는 공모를 통해 접수와 철저한 자격심사, 민주적 절차에 의한 비례대표 공천 및 순번 결정이 생명이다. 이러한 민주적 절차가 없다면 민생당에게 큰 패착이 될 수 있다. 민생당은 기득권과 기성세대 중심의 기존 양당과 달리, 정치권 안에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기회를 주는 젊은 정치인 양성소 역할이 되어주어야 한다. ㉠